

세계 자동차산업 적신호 켜졌다

제조업 '일자리' 창출의 대표 업종인 자동차 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1분기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의 수익성이 대거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독일 다임러, BMW, 일본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 업체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줄줄이 하락했다.

업체별로 현대·기아자동차와 미국 포드를 제외한 세계 자동차 업체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하락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9.3%p 하락한 BMW였다. 이어 닛산(-6.0%p), 혼다(-2.2%p), 도요타(-1.5%p), 다임러(-1.2%p), 폭스바겐(-0.7%p), GM(-0.6%p) 순이었다.

세계 자동차 판매가 위축된 데다가 저가 차종 비중이 커지고 환경규제와 관련한 법적 비용, 연구개발(R&D) 비용 등이 늘어난 데 따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멕시코 등 세계 주요 지역의 자동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 줄었다. BMW는 판매량이 0.1% 늘었지만 배기가스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벌금 14억 유로(약 1조9천억원)가

마리 반영되고 친환경차 등 R&D 비용이 겹치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폭스바겐은 중국시장 수요 축소 여파에 판매량이 2.8% 감소한데다가 경유차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한 법적 비용 10억 유로(약 1조3천억원)가 반영되고 친환경차 R&D 비용이 증가했다.

다임러는 판매량이 4.0% 줄고 유럽 마케팅 비용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R&D 비용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줄었다.

일본 업체는 신차 마케팅 비용과 R&D 비용 증가에다가 엔화강세가 겹치며 고전했다.

수익성 악화에 줄줄이 구조조정 '악순환' 영업이익률 ↓...현대차는 5년 만에 반등

도요타는 판매량이 0.4%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5.9% 급감했다. 닛산은 주력 시장인 북미와 일본, 중국에서 모두 부진해서 판매량이 10.2% 축소했고 수익성에선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혼다는 판매량이 5.2%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영국과 터키 공장 일시 중단 요인까지 겹쳤다.

세계 자동차 업체는 수익성 둔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수장을 교체한 다임러는 관리비용을 최대 20%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하고 미래 신산업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포드는 9월까지 미국, 유럽, 남미 지역에서 7천명을 감축할 계획을 밝혔다. 연간 약 6억달러를 아끼는 대신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GM은 작년 11월 북미 공장 5곳을 폐쇄하고 1만4천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3.4%와 4.8%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0.4%p와 2.4%p 높아졌다. 포드도 0.9%p 늘어난 6.1%를 기록했다.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1분기 기준으로 2014년에 고점을 찍고 줄곧 내리막을 이어오다 올해 반등했다. 다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5% 이상으로 유지돼온 데 비하면 아직도 낮은 편이다. 다임러, 도요타, GM, 폭스바겐 등은 영업이익률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67% 수준이다.

현대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영업이익률이 10%에 달했으나 지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수익성 둔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임후성기자



제네시스가 오는 8월까지 제네시스 G70, G80, G90 중 1대를 1주일간 자유롭게 시승하는 대규모 시승 이벤트 '제네시스 익스피리언스'를 실시한다.

“제네시스 1주일간 자유롭게 시승해보세요”

오는 8월까지 1천200여명 선정 대규모 시승 이벤트

제네시스는 오는 8월까지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제네시스 G70, G80, G90 중 1대를 1주일간 자유롭게 시승하는 대규모 시승 이벤트 '제네시스 익스피리언스(GENESIS Experience)'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G70 40대와 G80 100대, G90 40대 등 총 180대의 렌탈 시승 차량을 마련하고, 이벤트 응모 고객 중 총 1천200여명을 선정해 제네시스의 상품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1주일의 시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2019 북미 올해의 차 G70 ▲국내 럭셔리 대형 세단의 새 지평을 연 G80 ▲신차급으로 진화한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 등 대한민국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우수한 상품성과 높은 품질 기술을 증명한 제네시스를 고객이 일상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시승 이벤트를 마련했다.

시승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제네시스 홈페이지(<http://www.genesis.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시승을 희망하는 차종, 차수, 지역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임후성기자

車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 가닥

당정, 경기 활성화·소비진작 차원 6개월 검토...내달 중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도 추가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6개월 가량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말까지 한차례 연장한 상태다.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

하면 차량 가격 2천만원 기준으로 43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천500만원 기준으로 세금 인하 폭은 54만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조만간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기간을 확정된 뒤 6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도 조만간 할 예정이지만, 개소세 인하 연장은 정기국회까지 기다렸다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만큼 '원포인트'로 먼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현대위아, 어린이 교통안전 '가방안전덮개' 1만2천개 기부

현대위아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해 '가방 안전 덮개'를 기증했다.

현대위아는 지난 23일 북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현대위아 광주공장 직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가방 안전 덮개 전달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이날 광주 지역아동센터에 5천개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시·울산시·경기도 평택시·충남 서산시 등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총 1만2천개의 '가방 안전 덮개'를 선별했다.

현대위아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 덮개를 배포했다. 덮개는 식별이 잘 되는 형광물질의 초록색으로 제작, 시야가 제한적인 밤이나 빗길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행로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이동 제한 속도(30km/h)를 준수하지는 의미의 숫자 '30'을 크게 넣어 차량 운전자가 교통 안전 의식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가방 안전 덮개 기증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동시에 운전자에게도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오천경매

임야 단독섬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문의. 010-6834-7400

경매투자자

[빌딩]

- 유럽풍 최고급 상가주택
도심속 전원별장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접
대지230㎡ 건335㎡ 매가:상담후결정
- 계림3지구 재개발지 대로변 상가50% 급처분
2차선도로접 대지445㎡ 건1,500㎡
급매가11억(3.3㎡당820만원)
- 사옥, 병원, 은행 건물
대인동 대단지 아파트, 대인시장인접
4차선대로변 대지515㎡ 건평2,100㎡
병원 허가병상70개
매가 : 협의후 결정(임대도 가능)
- 산수5거리 대로변 상가
대지162㎡ 건평500㎡ 급매가 7억

=====

지역별, 금액별, 종류별, 매물 다량 확보중입니다

=====

***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싼매물 바로 계약합니다
===매수고객 다수 현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